

법 어

불별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는 고통스럽지만 이 안에서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고, 마침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노력과 고통이 있어야 새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만해축전을 통해 이념과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한 여름을 견뎌낸 결실을 만나는 것이자 모든 이들의 가슴을 적시는 시원한 감로수를 만나는 기쁨과도 같습니다.

‘입보리행론’에 ‘여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오늘부터 결단코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보호자를 기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며,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는 가르침이자 불은(佛恩)에 보답하겠다는 지극한 서원으로 전해 집니다.

누군가를 능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사람, 어떤 고통과 고난에도 다른 이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힘을 쓰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신 시대의 영웅들을 만해대상으로써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한 영웅들은 이웃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는 종교의 울타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에는 내가 가진 굴레를 모두 뛰어넘어 즉시 그 몸을 나타내시는 이 시대의 보살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에게도 술한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숭고한 헌신과 박애를 우선하여 실천으로써 보여주었고, 문화 예술로서 마음 깊은 감동으로 삶을 어루만지어 앞날의 용기를 전해주신 모범은 원력보살의 화현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얻으신 여섯 분의 수상자와 단체는 모두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고자 하셨지만

모든 선한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세상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고 갈채를 보내는 것은 사회와 시민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달래준 지난 세월의 기여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축하와 더불어 공덕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곳 인제군은 만해스님께서 고뇌 속에 자주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님의 침묵’을 집필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곳보다 생명과 평화, 화해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만해축전의 주제가 생명과 화해이고 인제군이 ‘생명특별군’을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매년 열리는 만해축전이 생명과 화해의 촉매 역할을 하고, 인제군이 생명 평화의 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해대상을 맞아 거듭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수상자 여러분의 원력과 공덕이 우리 사회의 앞길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0(2016)년 8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